

##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조신전>을 해부함-

---

저자 (Authors)	지준모
출처 (Source)	<a href="#">어문학</a> , 1975.2, 117-134(18 pages) <a href="#">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a> , 1975.2, 117-134(1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어문학회</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87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875</a>
APA Style	지준모 (1975).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조신전>을 해부함-. 어문학, 117-13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2 11:4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傳奇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다

—〈調信傳〉을 解剖함—

池 浚 模

## 〈內 容〉

I 序 論

II. 本 論

1. 小說 發生의 歷史, 地理的 背景
2. 〈調信傳〉의 抄述한이 傳해 지고 있다.
3. 〈調信傳〉은 9世紀 後半의 僧侶의 作品으로 본다.

4. 〈調信傳〉의 外部形式은 五段落 文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5. 〈調信傳〉의 内部形式은 庶民愛 情을 取扱하고 있다.

6. 唐代 傳奇小說 및 西歐 近代小說의 *genre*와 比較

III. 結 論

## I. 序 論

小說이란 名稱은 생긴 지가 오래이다. “飾小說 以干縣令”<sup>(1)</sup>에서 보는 小説은 곧 正대한 議論에 對立하는, 邪說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시시한 말”이란 뜻이다. “小說出於稗官 銜談巷語 道聽塗說”<sup>(2)</sup>에서 보는 小説은 길거리에서 주고 받는 “이야기”를 말한다. 곧 說話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小説이라 하면, 簡短히 口傳되어 오다가 後日에 文字로 定着된 單純히 怪異한 이야기가 아니고, 비록 怪異하다 하더라도 作者가 創作意 思로 直接 執筆하여 事件을 通한 하나의 價値觀念은 美的으로 表現한 文學 作品임을 말하는 것이 되겠다.

勿論 廣範圍하게 小説이라 하지만, 民族마다 各己 特異性이 있고 그 이들도 時代다라 다르니, 例하면 中國의 傳奇라든가, 佛蘭西의 Romance라든가, 日本의 物語(ものがたり)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 해도 小説은 앞서 말한 說話와는 嚴格히 區別되어야 하겠다. 적어도 一種의 現實的 人生問題가 다 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漢文으로 쓰여진 小説로 傳奇小說에 該當하는 作品의 嚆矢

(1) 〈莊子〉〈外物篇〉  
 (2) 〈漢書〉〈藝文志〉

는 모든 學者가 다 金時習의 《金鰲新話》이라고 한다. 30年代에 著書를 낸 金台俊, 50年代의 周玉山氏와 金思燁氏, 60年代의 趙潤濟氏, 70年代의 張德順氏 등이 한결 小說로는 이 <調信傳>을 取扱하고 있지 않다.<sup>(3)</sup>

筆者は, 그러면, 여기서 果然 《金鰲新話》가 우리나라 傳奇小說의 嚆矢인가, 《金鰲新話》 以前의 作品으로 傳奇小說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가에 對해 充明하려 한다. 그것도 新羅時代의 作品으로 小說에 該當하는 것은 果然 없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sup>(4)</sup>

筆者は 拙稿 <新羅漢文學史><sup>(5)</sup>에서 그 第4期를 西紀 787年에서 880年으로 보고 <小說文學登場>의 一章을 두어 <調信傳>을 小說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具體的으로 이것이 小說임을 證明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고 이에 試圖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小說 發生의 歷史·地理의 背景

單純히 잘막한, 怪常하고 奇異한 이야기에서 脫皮하여 人間의 即生活的인 事件에 우리의 感情의 共鳴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의 價値觀念을 그 底邊에 一貫하여 깔고 있다면, 그것은 現代의 意義를 지닌 小說의 軌道에 進入한 것이 된다. 勿論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것을 拒否하는 하나의 潮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社會의 構造가 多少 複雜하여 因에 따라 個人의 集團에, 또는 그 集團을 組織運營하는 制度에 對한 抵抗度가 차츰 커 지는 데서 온다. 곧 社會構造가 單純하던 時代에 單純하던 感情은 매우 複雜해지고, 지난 날에 個人意識과 集團意識이 別로 磨擦이 없던 것이 이제는 個人意識에 對立하기도 하고 또 衝突하기도 한다.

몸을 다짐을 즐을 도르던 時代에는 男子와 女子는 다만 相互間의 單純한 慾望의 對象으로 存在하였지만은 人間이 몸을 다짐을 즐 알면서부터 愛情은 對象性的 美와 密着한다. 비록 높은 段階는 아니지만, 情緒·性格 등의

(3) 金台俊 <朝鮮小說史>(서울, 1933), 周玉山 <朝鮮古代小說史>(서울 1950), 金思燁 <改稿國文學史>(서울 1954), 趙潤濟 <韓國文學史>(서울 1968), 張德順 <韓國古典의 理解>(서울 1973)等 參照.

(4) 趙潤濟氏의 上記書 p.45에서 對해서는 “그 構想이 이미 小說에 迫頭해 오느못 한 說話다.”하여 異見을 보였고, 同書 p.67~8에서는 高麗 朴寅亮( ~1089)이 지었으리라는 <崔致遠傳>을 小說로 보았음은 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新羅時代에까지 溯及시키지는 못하였다.

(5) 拙稿 <新羅漢文學史> 第4期 漢文學繼承期 ③ <小說文學登場> 參照, 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 <新羅伽倻文化研究> 4輯(大邱, 1972) 所收.

精神의 作用이 서로의 調和를 이룰 수 있는가의 與否가 크게 이 問題에 干與한다. 이미 社會도 文化와 經濟가 어느 程度로 發達하여 貴賤과 貧富의 階層사이에 여러 壁이 가로놓이게 된다. 이 때에 愛情에 關한 일이 如意하거나 不如意하거나 苦悶과 歡喜가 前日에 比하여 纖細하고 深刻하여 진다. 이쯤해서 小說이 생기게 된다. 愛情이 그 全部는 아니지만, 傳奇小說의 大部分은 그 主題가 愛情에 있다. 이는 愛情問題에서 두텁이 自我를 認識하는 程度가 他에 比해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西歐에서는 古代 및 中世의 이야기가 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叙事詩(epics)라 한다. 希臘의 Homeros이름으로 傳해 지는 《Ilias》, 《Odysseia》에서, 늦게는 13世紀 德逸의 《Nibelungenlied》에 이르기까지 다 容觀的인 叙事이나 그 속에 나오는, 例하면 《Ilias》에서 트로이의 王子 Paris는 希臘에 滯留中 女王 Helen을 誘惑하여 同伴으로 故國에 逃亡하였는데, 여기서도 集團 속에 個人의 愛情問題는 큰 比重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亞細亞 大陸의 極東에 位置하고 있는 半島이다. 先史時代를 除外하고는 歷史時代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國土는 漢文化圈에 屬한다. 5世紀 初까지는 遼西, 遼東, 半島의 西北部가 우리 民族과 半島民族의 混居地였던 것으로도 이 狀況은 斟酌할 수 있다.<sup>(6)</sup>

우리나라는 中央 亞細亞에서 東進한 시키토.시베리아(Scytho-Siberia) 文化를 中樞로 若干의 海路를 거쳐 北上한 複數의 南方系가 결들어<sup>(7)</sup> 그 基層(substratum)을 이룬 위에 次第에 漢文化가 表層(superstratum)을 이루고

(6) 普通 313년의 所謂 漢四郡의 撤廢로 보나, 中韓이 이 方面의 中國人은 多少의 約으로 撤收시킨 것은, 勿論 相當數는 歸化하였겠지만, 432년의 일이다. 이것의 對해서는 拙稿 <公無渡河考正>中에 “朝鮮筆은 樂浪郡洋인가, 北平府否?”인 가에서 論及한 바 있다. 이 論文은 <국어국문학> 62-63號(서울, 1973)에 收錄되어 있음.

(7) 最近 南來文化가 많이 議論되고 있다. 金榮來氏는 全北博物館長으로 在職時 嶺南, 湖南의 地名에서 南來의 痕跡을 밝힌 일이 있고, 日人 島田龍藏은 1928年 三本の 東洋文庫에서 <Les Dolmens de la Corce>를 發表하여 交石의 南北 兩形이 있음을 말하였다. <麗洛國記>에서는 首露王의 妃를 A. D. 42年 바다를 건너온 南國人으로 記錄하고 있고, 亦是 金海에 있는 月明寺跡에 月明寺 蓮修碑(碑文은 證元 撰)가 있는데, 이는 崇禎 丙子後 72年(1708) 세운 것으로 “得瓦於 額垣下 背有建康元年 ○○○○○字……且長遊和尚 自西域奉佛法而來” 등의 文字로 南來文化의 資料인가 한다. 建康元年是 A. D. 144年이다. 崔瑩(1287~1340)의 <送僧禪智遊金剛山序>에 依하면 楡岾寺의 五十三佛은 西域에서 바다 건너 왔는데 그 해는 漢나라 平帝 元始 4年(A. D. 4)이었다는 說에 對해, 이는 中國에도 佛敎가 輸入되기 63年(原文에는 61年)前이라 하여 虛誕하다고 一蹴하였으나, 閔漬(1248~1328)의 <楡岾寺事記>에도 이 記事가 있다. 古傳의 記錄인 것 같다. 여기서 西域은 印度의 變稱으로 볼 것이다. 비록 그 年代가 미정지 않다 하더라도 南來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分明하다. 地名과 支石은 Polynesia와 連關이 있고, 阿輪陀(Ayodhā, 憍薩羅國의 首都)國의 公主인 首露王妃와 佛敎輸入은 中國을 거치지 않은 印度와 直結되는 것이라 하겠다.

있다. 漢文을 同伴하고 一段 漢文化가 우리의 地域에 들어오자 이는 相當한 힘을 갖고 波及되었다. 高句麗의 大學은 A. D. 372년에 建立되었고, 新羅에서도 6世紀에는 오늘날 일어 볼 수 있는 資料로서 이미 높은 水準의, 中國의 眼目으로 보아도 遜色이 없는 文章이 나오기 시작한다. 每年 거의 빠지지 않고 中國에 使行하는 文官들이 받아 오는 中國의 漢文學은 거의 即刻的으로 이 땅에서도 行해 진다. 三國時代에는 그 資料가 稀貴하여 하나하나 對照를 못할 形便이지만, 近體詩도 中國에 일어나자 곧 따라 일어나고, 本稿가 取扱하는 傳奇小說도 거의 같은 時代에 일어났다. 高麗에 와서는 北宋의 蘇文이 流行하고 南宋의 程朱學이 輸入되고, 朝鮮에 와서 海의 考證문이 우리의 實學과 共時的으로 일어난다. 이를 알기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文化는 마치 全的으로 中國의 模倣에 汲汲한듯 한 感이 있으나, 內省的인 것과 獨創的인 것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이 專門的인 것은 各分野로 미룬다.

이제 中國의 傳奇小說을 槪總하여 보기로 하겠다. 5世紀 前후에 晉의 陶潛이 지은 <桃花源記>는 그 結構가 小說일적 하다. 그러나 그 後 南北朝를 거쳐 唐이 이르러 妮르소 小說이라 할 만한 것이 發生하기, 7世紀 前후에 王度의 <古鏡記>, 7世紀 末에 張鷟의 <遊仙窟>, 8世紀 初에 張說의 <虬髯客傳><sup>(8)</sup> 등이 보인 後로 8·9世紀 中에 나타난 著名한 作品들을 주려 들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時代順임)

- 沈既濟 <枕中記>
- 沈既濟 <任氏傳>
- 李公佐 <謝小娥傳>
- 李公佐 <南柯記>
- 陳鴻 <長恨傳>
- 元稹 <會真記> (鶯鶯傳)
- 白行簡 <李娃傳>
- 蔣防 <霍小玉傳>
- 李肇 <李泌傳>
- 沈亞之 (燕燕傳)
- 楊巨源 <紅線傳><sup>(9)</sup>
- 顧非熊 <妙女傳>
- 李復言 <杜子春傳>
- 房千里 <楊娼傳>
- 薛調 <劉無雙傳>

(8) 10世紀 初의 杜光庭이 作이라고도 할.

(9) <紅線傳> · <鶯鶯傳>이 다 10世紀 初의 裴鉞의 作品이라고도 할.

曹 鄴 <梅妃傳>  
段成式 <崑崙娘傳><sup>(9)</sup>

그러면, 이 時期의 小說을 何必 傳奇라 일컬어 왔는가 하면 胡雲翼 氏는 이렇게 말한다.

唐人小說 所抄寫的 皆係可歌可泣的 艷情和 可驚可歎의 仙俠 取材盡屬新奇 情節亦 復悽婉 故論者皆稱唐代小說爲「傳奇」<sup>(10)</sup>

곧 愛情小說이나 神仙小說이나 俠客小說이나가 이 時期의 3가지 特別 流行한 小說의 類型이나, 한마디로 하면 다 奇를 傳함에 있으므로 唐代小說은 一般의로 傳奇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唐과의 交涉을 보면, 公式的으로는 使臣의 往來가 있고 非公式的으로 僧侶와 商人의 往來를 들 수 있다. 新羅의 眞平王 43年(921) 곧 唐高祖 武德 4年에 新羅가 처음 唐에 遣使한 以後 總計가 130餘回에 미치고 唐에서 新羅에 온 使節 回數도 30數回에 이르고 있다. 唐의 太宗 때 唐은 國學 規模를 넓히고 外國留學生을 받아들여 그 數가 8千餘人이라 하니,<sup>(11)</sup> 高句麗, 百濟, 新羅의 留學生 總計數는 2·3千은 되었을 것이다.

新羅差入朝王子 並准舊例留習業學生 並及先住學生 共二百十六人 詳時限雜料<sup>(12)</sup>

라는 記錄은 學生數를 明示한 것으로, 現在에 남은 資料로서는 第一 많은 數字이다. 唐 및 五代의 科擧에 及第한 이도 90名이나 된다.<sup>(13)</sup> 僧侶의 留學도 많아 法號를 들 수 있는 高僧의 數만도 唐 以後에 80名은 될 것이며, 個人的으로 一時 多數가 入唐한 것으로 記錄된 것은 善德女王 4年(636) 慈藏律師가 弟子 僧實 等 10餘人과 함께 간 일이다. 이들은 다 文化交流에 큰 役割을 하였음은 疑心할 바 없다. 中國에 名詩가 있으면 購入해 오고 名小說이 있으면 購入해 오는 것은 留學生, 使臣 等に 限한 일이 아니고 商賈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니, 다음 記錄은 그 一片을 엿보게 한다. (標點은 筆者

(10) 胡雲翼 <新著中國文學史> p151 (上海, 1937)

元來 傳奇란 이름은 裴翊이 지은 小說로 後日에 一般의로 唐代 短篇小說의 通稱으로 쓰인 것이라 한다. 이 말은 陳師道의 <後山詩話> 中 范仲淹의 <岳陽樓記>를 評한 條목에 보인다. 裴翊은 高駢의 從事였는데, 그의 傳奇라는 것이 小說 1篇의 이름이 아니라 小說集의 名稱이다. 王國維 <宋元戲曲史>에 “唐裴翊作傳奇六卷”이라 함으로도 알 수 있다.

(11) <唐書>, 唐太宗 貞觀 5年 (631)記事, 이 數는 地方學校의 在學生 數까지 合算한 것일 것이다.

(12) <唐會要> 卷 36, 開城 5年 (836)의 일이고 新羅에는 興德王 11年의 일

(13) 崔塗 <送奉使李中父還朝序>參照, <東文選> 卷 84에 收錄되어 있음.

가 적은 것)

居易於文章最精切 然最工辭……當時士人爭傳 鷄林行實 岱其國相 率簡易一金<sup>(14)</sup>

이것은 新羅의 商人의 書籍 輸入을 傳하는 好簡의 資料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우리가 본 바로 當時의 緊密한 國際交流를 斟酌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傳奇小說의 發生源 宜當 8·9世紀의 新羅에 있어야 할 터인데, 6·7百年의 斷絶이 있는 後인 15世紀의 朝鮮 世祖時의 金時習이 처음 <金鰲新話>를 지음에서 비롯한다는 말이 突然 옳은 것일까? 우리의 文化를 받은 日本도 10世紀에는 <落窪物語>같은 小說類가 생겼던 것이다.<sup>(15)</sup>

## 2. <調信傳>의 抄述만이 傳해 지고 있다.

<三國遺事>에 傳하는 <調信傳>의 글을 보던 다음과 같다. 이것을 段落은 지어 轉載하는 理由는 本論 4의 便誼를 爲해서이다. 但 이 段落은 意味上的 것이고 漢文의 文體的 文脈上的 段落은 아니다.

嘗新羅爲京師時 有世遠寺之莊舍 在溟州株李郡 本寺造僧謂信爲知莊 信到莊上 悅太守金所公之女 惑之深

屢就齋山大悲前 潛祈得幸 方數年間 其女已有配矣 又往堂前 怨大悲之不遂已 哀泣至日暮 情思纏綿 俄成假寢 忽夢金氏娘 容豫入門 粲然啓齒而曰 兒早識上人於半面 心乎愛矣 奈嘗暫忘 迫於父母之命 強從人矣 今願爲同穴友 故來爾 信乃顯宮 同歸鄉里

計活四十餘年 有兒息五 家徒四壁 藜藿不給 遂乃落魄捩捩 糊其口於四方 如是十年 周流草野 惡纏百結 亦不挫體

適過溟州甄楓嶺 大兒十五歲者 忽斃死 痛哭收瘞於道 從率餘四口 到羽曲縣 結茅於路傍而舍 夫婦老且病 飢不能異 十歲女兒巡乞 乃爲里糞所噉 號痛臥於前 父母爲之嗷啼 泣下數行

婦乃○遊試涕 倉卒而請曰 予之始遇君也 色美年芳 衣袴爛熳 一珠之甘 得與予分之 數尺之綫 得與予共之 出處五十年 情鍾莫逆 恩愛纏綿 可謂厚緣 自比年來 衰病日益深 飢寒日益迫 傍舍流疑 人不容乞 千門之恥 重似丘山 兒寒兒飢 未遑計補 何

(14) <唐書> <列傳> 白居易條, 元來 元稹의 <白氏長慶集序>에 실린 것.

(15) 日本은 當時 이미 假名(kana)文字가 釋弘法에 依해 考案되어 널리 行해지매 그들의 自國語 使用으로 文學作品의 生産이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解釋되나, 우리 나라는 漢文의 操作을 自國語처럼 識者層은 할 수 있었고 曆과 文化交流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小說 發生源의 時期가 日本보다 뒤질 何等的 理由가 없다. 이 論調는 文化發達史의 觀點에 依한 것이지 결코 Chauvinism에 依해 우리것을 貶低하려는 것은 아니다.

暇有愛悅夫婦之心哉 紅顏巧笑 草上之露 約束芝蘭 柳絮飄風 君有我而爲累 我爲君而足憂 細思昔日之歡 適爲憂患所階 君乎余乎 奚至此極 與其來鳥之同歸 焉知集鴉之有鏡 寒乘爽附 情所不堪 然而行止非人 離合有數 請從此辭 信聞之大喜 各分二兒將行 女曰我向桑梓 君其南矣 方分手進途而形開 殘燈翳吐 夜色將闌

(及旦鬢髮盡白 惘惘然殊無人世意 已厭勞生 始飮百年辛苦 貪榮之心 洒然冰釋 於是櫛對聖容 懺滌無已 歸撥蟹岬所埋兒 乃石彌勒也 濯洗奉安於隣寺 還京師 甦莊任 傾私財 創淨土寺 勤修白業 後莫知所終)<sup>(16)</sup>

以上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唯一한 古形의 <調信傳>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原文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은 銘心해야 한다. 釋一然은 그 보다 앞서 “讀此傳 掩卷而追繹之”라 하였으니 곧 原文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아마 原文은 이보다 훨씬 더 긴 分景의 것일 것이다. 또 이것은 一段 一然이 <調信傳>에서 받은 影像을 再編輯한 것이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 文脈도 반드시 原作者의 文脈은 아닌 것이다.

新羅에서 高麗初까지의 小說作品으로 오늘날 그 原文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但 1篇뿐이다. 그것은 <崔致遠傳>이다. <崔致遠傳>이 小說이나, 說話이나 하는 問題는 다른 機會로 미루지마는, 筆者는 勿論 이것을 小說로 본다. 樞文海의 <大東韻府群玉>에 傳하는 <仙女紅僧>는 그 內容이 곧 成任의 <太平通載> 속에 실린 <崔致遠傳>과 同一한 것이나, 前者는 매우 疎畧하고 後者는 完文이다. 後者의 길이가 2,414字의 長文임에 比하여 前者는 不過 8分の 1밖에 아니 되는 397字인 것이다.<sup>(17)</sup>

### 3. <調信傳>은 9世紀 後半의 僧侶의 作品으로 본다.

#### ① 作創年代에 關하여

<調信傳>은 세상 말할 必要도 없이 新羅時代의 作品이다. 그러나, 萬若에 이것이 新羅를 假托한 後代의 作品이 아니냐는 反問이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理論으로써 이것이 틀림없는 新羅의 作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三國遺事>의 著者 一然이 新羅의 것으로 認定하여 그의 所著에 取擇한 것.

두째, 地名으로 보는 見解이다. 羽曲縣은 아마 羽谷縣으로, 聖德王時(742~765)에 羽谿縣으로 改稱하였는데, 後에 一時 羽曲縣이라 불렀던 模樣이다. 捺李郡도 一然이 <地理志><sup>(18)</sup>를 詳考해 보고는 註에, 捺生 後에 捺城郡인

(16) <三國遺事> 卷4 <洛山二大聖·觀音·正極·調信>條

(17) <大東韻府玉> 卷15; <太平通載> 卷 68 參照

(18) 여기서 <地理志>는 반드시 金富軾 등이 撰한 <三國史記> 中の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 以前부터 있었던 <三國史>도 包含하여 말한 것이다.

靈越郡과 柘己 後에 柘靈郡인 剛州 中의 어느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新羅時代에 一時 쓰인 名稱으로 後代의 詳考가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다.

세째, 寺刹名으로 보는 見解이다. 寺刹名은 3個가 나온다. 하나는 祿 有名한, 釋義湘이 創建한 洛山寺이다. 이는 7世紀 後半에 建立된 것이다. 또 하나는 調信이 지었다는 淨土寺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三國遺事>에 나오는 <金現感虎>의 主人公 金現이 세운 虎願寺가 慶州의 西川 附近에 있었다는<sup>(19)</sup> 程度의 明確한 記錄을, 淨土寺에 關해서는 얻어 보기가 힘든 것 같다. 그러나, 世達寺가<sup>(20)</sup> 當時의 興敎寺라 하였음은 一然이 <調信傳>을 再編輯하였을 때에 自身의 말은 插入한 것으로, 이 作品이 興敎寺가 世達寺로 불리던 新羅時代의 것임을 말해 준다 하겠다.

네째, 登場人物로 보는 見解이다. 女主人公의 아버지 金昕이 838年(閔哀王 元年) 康州大都督으로 오기 前에 溟州太守로 있었다면, 當時의 나이가 實地로 36歲가 된다. 일찍 장가를 들었다면, 딸의 나이는 18·9歲 程度는 된다. 金昕이나 그의 獨女로 登場하는 女主人公의 年條가 事實로 符合할 수 있다는 點이다. 金昕이 849年에 死去하였으니, 이로써 推測하여 이 作品은 그의 死後에서 멀지 않은 9世紀 後半에는 創作된 것으로 본다.

萬若 이 作品이 後代에 된 것이라면, 地所의 名稱이나 人物의 年代를 이처럼 近似하게 짜 놓을 수는 없다. 그런 것을 하자면 하나하나 史籍과 地志를 들춰야 하는데, 當時로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또한 作者가 己往의 虛構—實地를 model로 한 小說이라 할지라도 그 全部가 事實의 記錄단은 아닐 테니까—에 人物과 地所를 마치 歷史小說에서처럼 이렇게까지 正確을 期할 必要性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調信傳>은 물림 없는 新羅時代의 作品이며 그의 創作年代는 9世紀 後半이라고 推定하는 바이다. 反面, <浮雪居士傳>은 浮雪(625~?)이 7世紀의 人物이나, 그 中에 나오는 詩가 모두 近體詩로, 임제는 唐에서든 아직 近體詩가 發達하지 못한 때이니만큼, 이는 後代의 9世紀나 10世紀의 作品으로 분이 妥當하다. 或 그 以前의 作品일지라도, 後人이 改作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三國史>는 分量이 훨씬 <三國史記>보다 많은 書籍이었다. <東明玉篇> 參照.

(19) 虎願寺에 關해서는 閔周冕이 1669年에 엮은 <東京雜記>에도 明記되어 있는데, 이 冊은 前日에 있던 <東京志>를, <東京志>는 또 그 前日에 있었던 冊을 繼承하여 써 내려온 것일 것이다.

(20) 李丙熙譯 <三國遺事> 註에는 世達寺가 아니고 世達寺이며, 京畿道 開豐郡에 있었다함.

(21)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編, <浮雪功熟水懸空中> 條: 筆者 <新羅漢文學史> 第2期 漢文學樹立期 ⑤ <漢文學之樞頭>條 參照. 한글로 된 것도 있음.

## ② 作者에 關하여

그런데, <調信傳>의 作者에 關해서는 그 姓名이 왜 傳해 지지 않는가? 作者名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說話가 아닌가? 그러나, 이 問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 <調信傳>은 新羅時代의 너무나 有名한 作品이어서 作者도, 僧侶이건 佛徒이건, 有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一然이 이것을 <三國遺事>에 略載할 때 그 作者名을 굳이 言及하지 아니한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그 心理의 作用은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有名한 古蹟을 引用할 때 흔히 그 作者名을 省略해 버리는 것과 同一한 것이 아니겠는가? 一然은 <新羅殊異傳>을 이야기한 곳에서도 모두 編者名을 省略하고 있다. 또 <調信傳>의 作者名이 傳해 지지 않은 것이 결코 說話의 理由와 같은 것은 아니다. <春香傳>의 作者名이 傳해 지지 않는다고 하여 <春香傳>이 個人創作이 아니고 小說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筆者가 <新羅漢文學史>에서 <調信傳>의 作者가 必是 僧侶이라 한 것은 그 主題와 構成에 理由가 있다. 그 主題가 世俗의 愛慾生活의 虛無함을 보인 點과 더욱 그 構成은, 戒嚴한 僧侶를 主人公으로 하여, 愛慾의 充足으로 補償하여야 하는 無限한 心身의 苦痛을 그려내고 있는 點이다. 作者는 이것만으로는 滿足하지 못한다. “及且鬚髮盡白”以後의 後日譚을 通해 다시 additional information을—이 내록은 事實 小說로는 蛇足의 部分일—添加한다. 이것은 作者가 이 作品을 通해 表出하고자 하는 目的意識을 再強調하고 있는 部分이다. 이러한 執拗한 追跡은 初期의 小說이라는 點을 考慮에 넣으면, 徹底한 僧侶가 아니고서는 그 敘述이 不可能할 것이다. 이는 自身을 모델로 그린 體驗의인 것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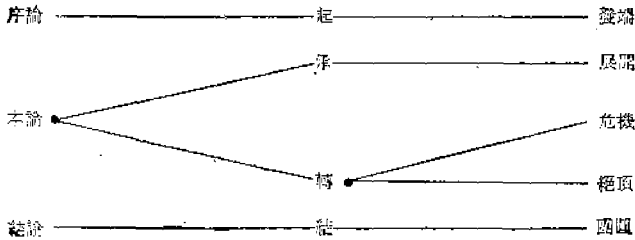
## 4. &lt;調信傳&gt;의 外部形式은 5段落 文章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普通文章의 큰 屈曲이나 段落을 이야기할 때 大略 다음과 같이 가른다. 첫째가 三段落 文章이요, 둘째가 四段落 文章이요, 셋째가 五段落 文章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完全히 各기 獨自의인 것은 아니고 다 相互問의 關聯을 가진다. 이것을 圖表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三段落 形式의 文章은 論說文에 使用되는 것이다, 四段落 形式의 文章은 近體漢詩에 使用되는 것이고, 五段落 形式의 文章은 戲曲, 小說 等に 主로 使用되는 것이다.

적어도 小說이라면, 그 出發에서 終著에 이르는 迂餘曲折이 餘他的 單純한 經路—비록 長距離일지라도—의 文章보다는 그 過程이 달라야 事件의 進展에 興味를 끌고 感性의 深化에 共鳴을 부르는 描寫가 可能할 것이다.

三段落文章・四段落文章・五段落文章



釋一然이 追釋之한 것이 비록 原作이 아니나 原作의 印象的 投影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一然의 글로써도 그 文章의 段落形式을 分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말로 그 大意를 적어 보기로 하겠다. 但 前章의 序頭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一然이 再編輯한 漢文의 文體的 文脈上의 段落은 아니고 그 줄거리의 構成(plot) 段落임을 再證한다.

① 發端

世達寺의 農地가 溟州 榛李郡에 있었는데 本寺에서는 調信이라는 증으로 農地監督을 삼아 그곳으로 派遣하였다. 그는 赴任한 뒤에 太守 金鈞의 말을 보고 깊이 탄하여 버렸다.

② 展開

調信은 이미 自記가 世上的 고든 貪愛에서 벗어나야 할 僧侶의 몸이라는 것도 있고 靈驗이 있는 洛山寺의 觀音菩薩에게 들을 夫婦로 맺어 주시도록 남몰래 祈禱드렸다. 그러나, 몇 해 뒤에 太守의 딸은 다른 男子에게 시집을 갔다. 그는 다시 洛山寺로 갔다. 觀音菩薩이 自己의 切切한 所願을 풀어 주지 않음 것을 怨望하면서 온 終日 흐느끼며 하소하였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갑자기 커두나 뜻밖에도 金女人은 調信을 찾아 이곳으로 當到하였다. 女人은 아름답게 웃으면서 속삭였다. “저드 스님을 한번 본 뒤로 다음으로 思慕하여 暫時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父母님의 命이 억눌리어 하는 수없이 단 사람에게서 지경은 갔었지만, 이제 決斷코 당신과 한푸생을 같이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뛰쳐 왔어요.” 調信은 僧服을 벗고 女人은 平民으로 차리고 둘은 먼 시골로 자취를 감추었다.

③ 危機

그 사이 사랑의 열매는 아를 낳 다섯을 두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리 저럭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漸漸 成長하여 먹고 입기만 하지,

아직 勞動力을 提供할 程度는 못된다. 이미 人生의 한 고비가 지난 40代의 夫婦로는 힘에 겨운 勞働을 하였지만, 7人家族의 最低生活을 到底히 支撐할 수가 없다. 드디어 定處없는 流浪과 乞食만이 그들이 窮理한 唯一한 對策으로 된다. 放浪生活이 於焉 10年나 된다. 얼굴에는 恒常 飢餓의 빛이 감돌고 衣服은 肢體를 가릴 수 없을 程度로 襤褸하다.

④ 絶頂

蟹蜆 고개를 넘어 갈 때 만이 15살 난 높은 드디어 늙어 죽었다. 그들은 울면서 아이를 맡았다. 남은 食口를 끌고 洞曲縣에 이르렀을 적 이 50代의 夫婦의 健康은 極度로 衰弱하였다. 둘째인 제집애가 마을에 내려가 밤을 빌다가 개에게 물리고 말았다. 피를 흘리며 걸룩거리며 돌아와서 父母 앞에 엎드려 아픔과 슬픔으로 울어댄다. 父母는 거의 虛脫狀態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⑤ 團圓

女人은 하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 “金石같이 굳은 盟誓을 하여 놓고 이치런 어려운 時期에 헤어지는 것이 道理는 아니지만, 所率이 단촐하던 或 살 길이 나설른지도 모르니 남은 아이를 들씩 갈라 맡고 나는 故鄉으로 갈테니 당신은 氣候가 따뜻한 남쪽으로 가 보시는 것이 어떻실까요?” 하고 女人은 提議한다. 無能한 男使 調信은 그 便이 負擔이 좀 가벼워질까 하고 同意한다. 일찍 사랑과 血肉으로 맺어진 이 여섯 사람들은 두 갈래로 길을 달리하며 떠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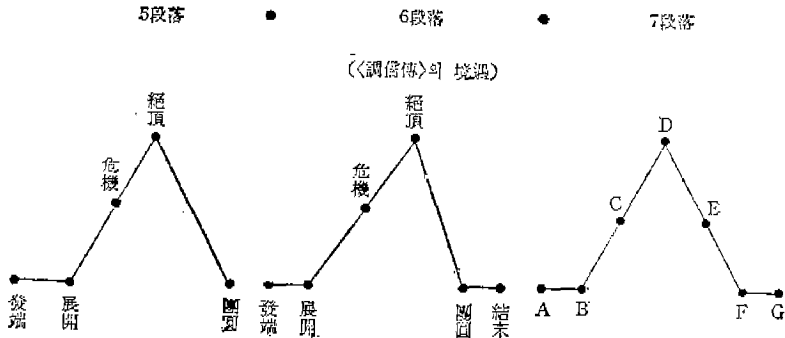
以上은 釋一然의 글을 筆者가 大意로 옮긴 것이다. 一然의 글에, 勿論 原作도 그렇겠지만, 꿈 뒤의 部分이 있지만, 一段 여기서는 除外하였다. 既述한 바와 같이 그것은 小說 自體로는 不必要한 分이기 때문이다.

한편 George C. Williams氏는 敘述圖表(narrative graph)에 다음과 같은 7個 段落을 두었다.<sup>(22)</sup>

- A. exposition 解說(豫備知識)
- B. provocation 刺戟(變化를 豫測하는 前提)
- C. rising action 上昇行動(變化過程)
- D. climax 絶頂(轉換을 決定하는 契機)
- E. falling action 下降行動(絶頂에 後續하는 局面)
- F. outcome 結果(事實的 終結)
- G. conclusion 結末(附加的 情報)

(22) G. C. Williams <Creative writing> pp.304~14, New York, 1935.

그러나, A와 G가 모든 小說이 必須的으로 갖추어야 할 條件은 아니다. 그러나 基本骨格은 亦是 5段落이다 할 것이다. 萬若 <調信傳>을 더 嚴密히 이야기하면, 圓圖 위에 나시 附加的 情報을 가지는 6段落의 形式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3種의 段落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품 위의 部分에 長男을 묻을 곳을 파 보니 彌勒石佛이 있었다는 등 多少 怪奇要素가 있으나 이는 傳奇小說로서 何等 탓할 바 못된다. 現代小說도 怪奇한 것을 手法으로 쓰는 사람은 있다. (23) 이드 하나의 美意識(Aesthetische Bewusstsein)의 産出이니까 탓할 바는 아니다.

아무튼 우리의 <調信傳>은 充分히 小說의 構造를 갖추고 있는 小說이다.

5. <調信傳,의 內部樣式은 庶民愛情을 取扱하고 있다.>

<調信傳>에 나오는 主人公은 調信과 金女人이요, 다음으로 主要한 登場人物은 金近 內外 調信의 長男, 金女人의 前男便 등을 들 수가 있겠다. 먼저 이들의 性格 및 風貌를 살펴 보자. (24)

調信—키는 普通이고 體格은 弱한便임. 얼굴은 금상스런고 性格은 濶極的

(23) Marcel Hymé(1902~ )가 지은 小說. <Le passe-murailles>(壁으로 지나 드는 자나미)와 같은 것은 올해 奇怪美를 담고 있다. 47歲에 壁으로 지나갈 수 있는 能力이 생겨, 正當回復을 醫師에게 酬謝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利用하여 自己를 賤待하는 課長을 辱說하고, 假名을 써서 倉庫強盜, 寶石強盜를 하고, 教導所에 잡혀서는 물살등없는 警戒網을 脫走하여 超人의 名聲을 얻고, 有夫女의 愛情을 나누다가 일제기 醫師가 處方한 怪物에서 만든 丸藥을 頭痛藥인 줄 잘못 알고 服用한 것이 탈이 되어 壁에 들어가 빠져 나오지 못한채로 化石이 되었다는 줄거리.

(24) <三國史記> <列傳>과 <三國遺事> <調信>條의 記錄을 參考하여 적은 것. 이 小說은 modcl小說의 蓋然性이 있다.

인. 學識이 別로 없음.

金女人—金昕의 無男獨女, 普通 키에 날씬한 몸매인. 얼굴은 魅力的이거, 性格은 積極的이고 潤達함.

金昕—(803~849) 太宗武烈王의 九世孫, 學問과 器量으로 크게 推仰됨. 憲德王 17年(825) 唐에 使臣으로 가 國威를 宣揚, 唐은 이 弱冠의 使臣에게 異例로 金紫光祿大夫 太常卿의 官印을 줌. 還國하자 그의 勞를 賞아 南原太守로 任命됨. 暫時 溟州太守로 있다가 閔哀王 元年(838)에 康州 大都督으로 陞進, 翌年 張保皋의 軍隊를 大丘에서 막다가 失敗함. 王이 絞絙됨을 契機로 入山.

金昕의 妻—美貌인 貴族女, 氣節은 있으나 貞淑하여 內助를 다함. 男便이 入山하였을 때 따라갔고, 男便이 死去한 後에 尼僧이 됨.

調信의 長男—얼굴은 父母를 닮아 容상스러우나, 性格과 德格은 特別히 아버지를 닮아 柔順하고 弱함.

金女人의 前男便—健壯한 體軀와 거칠은 性格의 貴族武人(?)

그러면 調信과 金女人이 덕어가는 사랑과 苦痛의 顛末에 對해 一然이 再編輯한 文章을 通해 그 表層과 深層은 考察해 考고기로 하겠다.

調信과 金女人이 컸는데 서로가 좋아하게 된 것은 男女間의 交際가 比較的 自由로왔던 新羅社會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調信의 出家前의 身分的 階層은 아마 平民인 것 같으며, 일찍 佛門에 들어온 後로 衣食에 關한 걱정은 없었다. 金女人은 그의 身分이 말하듯이 豪奢로운 生活을 好호하며, 더욱 그녀가 외동딸임을 考慮에 넣는다면 그녀가 얼마나 父母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누구나 넉넉히 斟酌할 수가 있다.

15.6歲가된 金女人에게 좋은 婚談이 쏟아져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選擇된 新郎은 勿論 貴族少年으로 體軀가 健壯하고 將來性 있는 武人으로 判定된다. 그러나 處女에게는 이미 마음이 奪린 대가 있다. 어머니는 딸을 同情하지만 說得하여 調信은 斷念하게 하고 억지로 少年武人에게 시집가게 한다. 그들의 新婚生活에 있어서 金女人이 恒常 理想的 男便像으로 그리는데 調信의 位體를 現實의 男便인 武人은 補償하지 못하였다. 元來 氣勝한 金女人은 自己가 不幸하다고 생각하는 現實에서 exodus를 敢行하여 調信을 찾아간다. 그러나, 여기서 Arisototeles가 말한 悲劇的 缺陷(tragic flaw)은 確約된다.

調信과 金女人은 愛情의 逃避生活을 한다. 갑자기 行方不明이 된 金女人은 그녀의 媿家에서나 親庭에서는 百方으로 搜索한다. 그들은 이 그물에 걸

리지 않기 爲하여 變裝을 해야 했고, 僻地에 길숙히 숨어야만 했을 것이다. 愛情의 陶醉속에 살던 어느 時期까지는 이 같은 일이 한층 더 드릴을 더해 주는 役割을 하지만 興奮狀態가 繼續反復되던 이미 그것에 對한 免疫이 생기게 마련이다.

歲月이 흘러서 金女人의 行方不明은 차츰 사람들의 話題에서 멀어진다. 調信은 別般學識이 없어 訓長 노릇으로 謝禮穀을 받을만 한 實力이 못된다. 女人도 몸에 익힌 經濟的 生活手段은 없다. 女人이나 男子나 다 肉體的 勞動을 提供하여 僅僅히 生活을 이어 간다. 이런 동안에 丁息이 하나씩 생겨 食口는 늘다. 生活은 느는 食口數에 比例하여 漸次로 더욱 窮困하여 진다. 元來 體壯하지 않은 調信은 40대에 돌면서 肉體勞動에서 오는 견딜 수 없는 苦痛과 또는 精神的 悔恨 같은 것에서 오는 重壓(stress)이 겹쳐 자주 몸져 눕는다. 그는 이미 K. Schreiber가 말하는 自信缺乏症(Selbstunsiche)의 患者이기도 하다. 金女人도 豪奢롭던 處女時節에 비해 오늘의 處地는 그녀의 健康을 매우 약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답게 家庭을 前導하는 位置에 있다. 그들은 이제 食口를 데리고 乞食에 나설 만큼 形便은 切迫하다.

10年間의 澆淡乞食에서 뼈아픈 恥辱을 참으며 오직 스스로 끊을 수 없는 生命에 嫌惡마저 느낀다. 長男이 15歲가 되나 勞動能力은 좋지 않다. 飲食을 얻는데 乞食이 나온 手段이 된다. 그러나, 일곱 食口들의 배를 불러기에는 最小限의 絶對量이 不足하다. 아비를 닮아 柔順하고 消極的인 長男은 父母를 생각하고 어린 동생을 성가하여 얻어 온 飲食을 中途에서 줌 먹었다고 버릇처럼 簡讓한다. 그래서 食事를 거트기가 일쑤이다. 드디어 長男은 한참을 나이에 飢餓로 죽었다. 그 바로 아래의 딸들은 求乞하러 갔다가 富者집 사나운 개에게 물려 온다. 이들은 모두 氣盡脈盡하다. 드디어 아내가 子女를 갈라 離別할 것을 提議한다. 調信은 이 極限的인 狀況(situation) 속에서 家族에 對한 負擔의 輕減을 오히려 기뻐한다. 調信은 이제 良心의 苛責을 느껴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것에서 單 하나의 當然한 計策이 아닌가? 이때 調信의 마음에 다른 일을 생각할 자리는 거의 없었다.

無能한 젊은 破戒僧과 氣勝한 美貌한 有夫女가 封建社會의 階層的 身分과 道德的 制約을 無視하 고結合하지만, 畢竟 徹底한 經濟破綻은 50대의 그들에게 離婚이단 現實로 풀아제우고 있다. 子女扶養의 分擔問題도 顯頭된다. 封建社會는 그들의 愛情의 前途에 暗澹하고 悲慘한 陷穽을 豫備하고 있었을 뿐이다. 金女人은 貴族出身이나 調信과 結合된 以後의 生活은 庶民中에서도 最下級을 代表한다. 이 小說이 주는 悲哀美는 觀念的인 것이 아니고 具體的인 것으로 描寫되어 있다. 筆者는 前日 이 作品에 對하여 唐의 傳奇小說인

<枕中記>나 <南柯記>에 比較하여도 훨씬 뛰어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唐李泌 <枕中記> 主人公盧生 登科出身 盡人世之榮華 窮聲色之娛樂 名動當時 位躋三公 缺伸而覺 乃是一夢 李公佐 <南柯記> 主人公淳于棼 爲槐安國駟馬 又守南柯郡 男婚女娶 榮耀莫比 適敵兵來侵 麾下敗績 公主遭疾死 哀鴻而禱葬之 儒而知夢 叢敘述諸行無常者矣 <調信傳> 無異於此 亦一夢也 然而曾無顯達之貴 又無庫廩之富 避人耳目 潛自踪跡 只以世所謂愛情 消費歲月 老來冷落 子女一無成就 或餓死 或病傷 流淺乞丐 已無體面之可恥 只恨生命之災斷 始相許時 青春相從 既無奈時 皓首相別 庶幾乎民衆之生涯矣 此作優秀性 可證有餘<sup>(25)</sup>

## 6. 唐代 傳奇小說 및 南歐 近代小說의 genre와 比較

唐代的 傳奇小說의 特徵은 어떤 것인가? 그 價値와 地位는 어떤 것인가? 이런 質問에 對한 答은 唐代的 많은 小說作品을 分析하여 歸納的으로 얻을 수밖에 없다. 또 唐以前의 作品과 對比해 볼 수밖에 없다. 中國의 祝秀俠氏는 이 方面의 가장 要領있는 著書를 내었다.<sup>(26)</sup> 여기서는 祝氏의 論을 簡短히 說明하고 우리의 <調信傳>을 여기 對比하여 볼 때 어느 程度의 可否反應을 보이는가를 알아 보겠다. 이는 <調信傳>이 傳奇小說인가, 아닌가를 더욱 決定的으로 識別하는 尺度가 된다.

① 晉·六朝의 志異作品은 鬼神이나 人間의 이야기를 簡短히 描寫한데 反하여, 傳奇는 作者의 意識的 創作으로 多方의 文學的 技巧가 發揮되어 있다.

② 傳奇는 이미 人間의 現實的 社會生活의 範圍로 進歩된 것이다. 或 神仙과 鬼神에 依托한 愛情問題도 實地는 自由戀愛思想의 變形인 뿐이다.

③ 人物은 素朴한 農民이 아니고 商業發展에 따르는 一般 小市民型이 多樣하게 登場한다. 商人, 無賴漢, 強盜, 妓女, 市井輩 等이다.

④ 商業社會의 小市民階層에서 擡頭하는 個人主義는 作品 속의 人物은 個性的인 것으로 한다. 곧 個人生活을 描寫한다.

⑤ 事件 속에서 人物의 活動은 逼真하여 讀者의 共感을 強力하게 喚起한다.

⑥ 單純한 消遣이 目的이 아니고 作者의 創作意圖가 明白히 드러나 있다.

(25) 脚註 (5)와 同所

(26) 祝秀俠 <唐代傳奇研究> <序論>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7), 丁奎福氏가 <啓明論叢> 3輯(啓明大學, 大邱 1966)에서 原著의 序論을 譯成한 것이 있음

以上の 唐代 傳奇小說의 特徵에 우리희 <調信傳>을 對比하여 보자.

① 本 <調信傳>은 事件의 始末이 글을 別렸고 長男의 屍體가 石礮에 있다는 志異의 要素가 있으나, 이는 不知名氏의 創作의 意圖가 愛慾과 苦痛으로 點綴하는 人生의 虛無함을 보이는데 있다. 文學的 技巧로도 아마 原作에서는 더욱 生生하게 描寫되어, 愛情逃避와 勞動生活과 十年乞食과 老境에 離別을 하는 場面 등은 讀者로 하여금 그들의 崎嶇한 一生에 一抹의 눈물섞인 感懷가 없을 수 없다. 이는 文學的 技巧가 높은 水準으로 發達된 것 을 立證한다.

② 글 속에는 完全히 現實社會가 展開된다. 神仙이나 鬼神에 依托도 하지 않았다. 女人은 父母의 命에 못 이겨 간 娼家에서, 男便에게서로 決然히 脫出한다. 青年은 切切한 처로의 愛情으로 破戒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 두 사람 의 結合은 自由戀愛思想의 實踐을 意味한다. 더우기 한쪽이 有夫女 임을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大膽한 構成이다.

③ 女主人公의 身分은 貴族이며, 高官의 딸로 貴族의 妾가 된 사람이다. 그녀의 exodus는 家門에 對한 不名譽코다는 個人의 幸福 乃至는 慾望은 더 重視하는 決斷性을 보인다. 이것은 곧 個人主義의 思考가 發展하는 時代 相의 한 反映이라 할 수 있다.

④ 비록 原作은 아니지만, 事件속에 人物의 活動과 性格은 個性的인 面이 뚜렷하다. 金女人의, 脫出과 離別을 通해 고인 果斷性있는 行動이며, 調信의 生活에 對한 無能力과 消極性을 우리는 充分히 看取할 수 있다.

⑤ 이 作品은 單純히 消遣을 中心으로 한 興味物은 아니다. 作者는 한 切實한 精神的 體驗을, 이 作品은 通하여 具象化시켜 놓은 것이다. 作者의 創作意圖는 明白하다.

以上 6條目을 對比해 본 結果 이 作品은 晉·六朝의 志異錄怪의 說話의 範圍에서 벗어나 唐代의 傳奇小說의 本格的인 作品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희 <調信傳>을 다시 西歐의 近代小說에 비추어 보는 것도 興味롭다. 그것은 곧 <調信傳>이 東西의 小說史에 그 時代의 位權 말고도 그 性格의 位置가 果然 어디쯤에 있는가 틀 아는 데 도움을 줄 뿐더러, 나아가 <調信傳>이 說話가 아니고 小說이라는 것을 더욱 確固히 뒷받침할 것이라 고 믿는 바이다. 西歐의 近代小說은 르네상스(renaissance) 以來 一대轉藩을 맞이한 以後 17世紀에 이르러 西班牙의 세르반테스(Cervantes)가 지은 “돈·퀴호테”(Don Quixote)는 特異한 存在이고, 18世紀 佛蘭西의 브레보(Prevost)가 지은 “마농 레스코”(Manon Lescaut), 英國의 리차드슨

(Richardson)의 作品 “파멜라”(Pamela), 獨逸의 괴테(Geothel)의 作品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등으로 Realism의 手法이 發芽한다. 이 時期의 作品의 共通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sup>(27)</sup>

- ① 文章形式이 散文으로 되어 있다.
- ② 作中の 人物이 實社會의 市民과 一般人民으로 되어 있다.
- ③ 人間主義的 世界觀에 立脚하였다.
- ④ 事件의 特色으로는 男女間의 情事가 많다.
- ⑤ 個人的인 生活과 運命이 主로 그려져 있다.
- ⑥ 作者가 確實하다.
- ⑦ 作品에 作者의 個性이 뚜렷하게 느껴 진다.
- ⑧ 이야기의 終末은 大概 悲劇的이다.

우리의 <調信傳>을 以上 西歐의 近代寫實主義的 文學作品이 가지는 8條目의 特徵에 對照하여 보자.

① <調信傳>은 散文으로 記述되어 있다. 原來 東洋에서는 敘事는 主로 散文으로 되어 있고 叙情은 韻文으로 되어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② 神話, 說話에 있어서 神, 半神, 英雄, 奇人 等이 主人公으로 登場하지만, 小說에서는 一般的인 人民이 主人公으로 登場한다. <調信傳>의 主人公은 一般的인 人民의 範疇에 屬하는 人物이다.

③ 西歐에 있어서 古典悲劇은 神이 人間의 運命을 操縱하는데, 近代小説은 人間이 人間의 運命을 担하는 것을 그린다. <調信傳>의 主人公들은 自己의 運命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④ 個人生活에 한 重大한 部分은 愛情生活이다. 그런 意味에서 個人生活의 浮刻은 愛情生活의 浮刻을 齎來한다. 西歐에서는 이것이 18世紀 以後에 普遍化한다. 東洋에서는 中國은 8世紀 以後로 愛情을 主로 다룬 傳奇小記이 流行한다. <調信傳>은 男女의 愛情이 基동 줄거리로 되어 있다.

⑤ 個人이 지는 集團的 運命의 位置에 個人이 지는 個人的 運命이 交代된다. <調信傳>은 個人이 지는 個人的 運命을 描寫하고 있다.

⑥ <調信傳>의 作者는 알 수는 없지만, 萬若 그를 A라 한다면, 그의 A로서의 個性, 主觀, 教養 等은 作品을 通해 뚜렷이 看取된다.

⑦ 이 項目에 對해서는 前項에 이미 言及하였지마는, 그가 지은 다른 作品이 있다면, 그 兩者間에 共通되는 特徵은 抽出해 낼 수 있을 것이다. 文體 같은 것도 作家의 個性에 歸屬시킬 수 있다.

(27) 金東里 <敘事詩形態論>, <文藝學概論> 所收(서울, 1958) 參照

⑧ 18世紀 浪漫主義(Romanticism)에서도 寫實的手法는 發見되나, 그것은 自然가 觀念的이고 幻想的인 體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美化된 世界만 映寫된다. 19世紀 後半의 寫實主義는 浪漫主義의 안티·테제로 登壇하여 現實에 對한 忠實한 描寫를 本務로 한다. 그러므로, 自然 現實社會의 苦痛이 늘고 가는 悲劇的 終末에 着眼한다. <調信傳>의 悲劇的 終末은 現實味가 넘친다. 이 寫實的인 作品은 短篇으로, O'Connor의 말처럼, 이 短篇도 時代精神 같은 것보다는 “人間的 運命에 對한 精神的 絶叫”이며, “孤獨한 個人의 藝術”이라 하겠다.<sup>(28)</sup> 우리의 千年前의 作品인 <調信傳>이 現代精神속에서도 오히려 不滅의 光芒을 던져 주는 것을 생각하면 感傷가 無量하다. 그러던 <調信傳>의 東西 小說과 對照한 것을 圖示하여 보자.

唐代·傳奇小說 <調信傳> 西歐·近代小說

① 意識的 藝術創作	←→	① 文章形式은 散文
② 自由戀愛思想	←→	② 實社會의 一般人民
③ 商業都市의 小市民	←→	③ 人間主義 世界觀
④ 個人生活의 描寫	←→	④ 男女間의 情事
⑤ 人物의 逼真한 活動	←→	⑤ 個人生活와 運命
⑥ 創作意圖가 分明	←→	⑥ 作者가 確實
	←→	⑦ 作者의 個性이 明確
	←→	⑧ 終末은 悲劇的

### Ⅲ. 結 論

1. 新羅自體의 社會相이나 新羅와 唐과의 文化交流面에서 보아도 新羅의 末期에는 傳奇小說의 發生이 充分히 可能하다.
2. <<三國遺事>>에 傳하는 <調信傳>은 原作 그대로가 아닌, 一然이 抄述한 것에 不過하다.
3. <調信傳>은 說話文學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發端, 展屍, 危機, 絶頂, 團圓의 曲折을 갖추어 가진 五段落 形式의 文章임이 다른 모든 小說과 같다.
4. <調信傳>은 現實會社에 있어서 庶民愛情을 그렸고, 經濟的 無能力은 이미 老境에 到達한 夫婦를 離婚으로까지 몰고 가는 迫眞感 있는 優秀한 寫實의 作品이다.
5. <調信傳>은 唐代 傳奇小說의, 나아가서는 西歐 近代小說의 여러 特徵과 大部分 相通하는 小說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傳奇小說의 嚆矢는 新羅에 있고, 그 中에서도 <調信傳>은 참으로 白眉的인 存在이라 하겠다. (1974年 不染齋에서)

(28) 金洙暎 等譯 <<20世紀文學評論>> (서울, 1970) 所收의 후랑크 오키나 <短篇小說論> 參照. 原編은 Fransis Brown <Highlights of Modern Literature>